

청와대- 본청 핫라인 녹취록-1 (9:31)

BH: 일반상황실입니다.

해경청: 예

BH: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?

해경청: 예 인천에서 제주입니다.

BH: 인천에서 출발시간이

해경청: 6시 그러니까 어제 18시30분에 출항했습니다.

BH: 어제 18시 30분 출항

해경청: 예

BH: 도착 예정 시간요?

해경청: 예 도착예정 시간이 어제 오늘 아침 9신가?

BH: 9시경 제주항으로요

해경청: 예

BH: 배의 크기는 어떻게 되지요?

해 경청: 지금 6852입니다



청와대- 본청 핫라인 녹취록-2 (9:31)⁻

BH: 6852톤 해경청: 예

BH: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아까 승무원은 아까 인원 들었고

해경청: 예

BH: 상태는 좀 나옵니까?

해경청: 지금 현재 우리 경비정하고요 옆에 인근 항해중인 뭐야 여객선이 상선이 구

조조정하고 있습니다

BH: 상선이 구조중인 상태인가요?

해경청: 예

BH: 몇 척이나 있지요?

해경청: 예

BH: 상선은

해경청: 아 지금 그 파악 중에 있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

BH: 어디 우측으로 기울어져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? 해경청: 지금 확인 파악하고 있습니다



2015노177 123정장 판결문

123정장 사건에서 법원은 "피고인을 '현장지휘관'으로 지정한 후에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는 2014. 4. 16. 09:36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분 22초 동안 통화하고,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 등에서도 피고인과 TRS로 20여회 통신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,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 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 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"



4월 16일 오전 해경청장 동선

시간	이동방법(장소)	활동내역
09:10~10:29	해경청 위기관리회의실	상황지휘
10:29~10:50	관용차	10:30 대통령 지시사항 수신 (특공대 투입)
10:50~12:20	인천헬기 (B-517)	현장출발 및 사고해역 도착



4월 16일 오전 해경청장 동선

※목포헬기 B-511 승객구조 12명 / 목포헬기 B-512 승객구조 10명

구분	성명/ 직책	이동현황	해경 교신 내역
해양경찰청	김석균 청 장	인천헬기(B-517) 인천출발 10:50 현장도착 12:20	-4월 16일 09:54 - 인천서: 저희가 직접 구조임무보다는 청장님 입장할 수 있게 끔 준비 하라는 겁니까? - 본청: 예
서해지방 해양경찰청	김수현 청 장	-4월 16일 09:14 - 무포헬기(B-511) - 서해청 : 청장님 청장님 헬기 요 앞으로 앞으로 대라고 니다. 11:30 - 항공대 : 청장님한테 댈 수가 없어요 그럼 구조를 못 해요 한장도착 -4월 16일 09:41 11:49 - 항공대 :지금 이륙했습니다. 구조대 3명 태우고 - 서해청 : 서해청 패드장으로 오라고 하라니까	



10시 25분 BH직통 전화 녹취록

BH: 해경 청장님 어디 계십니까?

해경청: 여기 상황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십니다

BH: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메시지 전해 드릴테니까

해경청: 예

BH: 빨리 전해주세요

해경청:예

BH: 첫째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

해경청: 예

BH: 그냥 적어 그 다음에 여객선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 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해라. 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청장님한테 메모로 넣어드리고… 업데이트 추가된 거 있어요? 아 왜 자 꾸 인원이 틀려?